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일시	2021. 2. 8.(월) / 총 3매 (본문 2, 참고 1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상현, 사무관 나귀용, 주무관 이명신 • ☎ (044) 201-3877, 3883	
	한국도로공사 사업개발처	담 당 자	• 팀장 서건철, 부장 박건, 차장 전해진 • ☎ (054) 811-3520, 3521	
보 도 일 시		2021년 2월 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8.(월) 14:00 이후 보도 가능		

고속도로 유희부지에 물류시설 들어선다

- 기흥IC 인근 유희부지, 시범사업 시행자 선정...23년 상반기 운영 목표
- 다른 후보지(33곳)에 대해서도 추진방안 검토중...상반기 내 로드맵 수립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지난 8일, 한국도로공사(사장 김진숙)와 「글로벌네트웍스 컨소시엄*」이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인근 유희부지(약 1.6만㎡)에 물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* (주)글로벌네트웍스, 아워박스(주), 계성건설(주), (주)삼보기술단

- 글로벌네트웍스 컨소시엄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 지난해 12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,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.

□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-19 등으로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폐도(廢道, 다니지 못하도록 폐지된 길), 과거 영업소·휴게소 부지 등 고속도로 유희부지를 활용(후보지 34곳 발굴, '20.7)해 물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.

- 후보지 중 기흥IC 인근 유희부지는 수도권 내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업계의 수요가 많은 곳으로,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우선 추진하였다.
- 이번에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(SPC) 설립 이후, 올해 상반기에 물류시설 설계에 본격 착수하는 등 '23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.

-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한국도로공사 부지를 임차해 물류시설을 직접 건축·운영(30년)한 이후, 소유권을 이전하는 BOT 방식(Build-Operate-Transfer)으로 기획하였다.
-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, 지하 2층~지상 4층으로 구성된 물류창고에 냉동·냉장 및 풀필먼트*(fulfillment) 설비를 비롯해 인접도로에 연결되는 진·출입로,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함께 구축된다.
 - * 물류 전문업체가 판매업체들의 위탁을 받아 제품의 보관·포장·배송·교환/환불 등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‘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’
- 또한, 설계 과정에서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·개선대책을 마련하고, 도로 위에서의 조망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경관디자인 계획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.
- 한국도로공사는 송유관·창고 등 부지 내 지장물 정리와 함께 수도·전기 등 기초공사를 실시하고,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지로 직접 연결되는 진출로를 설치(하이패스IC 포함)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부지를 제외한 후보지 33곳에 대해서도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으며,
 - 후보지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모델, 우선순위 분석결과 및 공공성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고속도로 유희부지 내 물류시설 구축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“고속도로 유희부지 내 물류시설 구축을 통해 대국민 물류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, 대형트럭의 도심 내 진입 억제를 통해 교통사고·환경피해도 감소할 것” 이라면서,
 - “기흥IC 인근 시범사업 및 로드맵 수립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나귀용 사무관(☎ 044-201-387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

시범사업 조감도 (출처: 사업시행자 제안서)

